

보 도 자 료



- ◆ 2023. 7. 26. (수) 배포
- ◆ 총 6쪽 (본문 2쪽, 첨부 4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문화홍보실장 ☎ 032-770-8631
김기태 문화홍보실 행정원 ☎ 032-770-8632

Just Arrived! 남극과 북극, 인천 공항으로...

- 극지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기관 협업 전시 개최 -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예술위, 위원장 정병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하 공항공사, 사장 이학재)는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협업 전시 <남극/북극 출발 → 인천공항 도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극지연구소와 예술위는 국내 문화·예술계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극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서울에서 협업 전시 <0.1cm: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을 개최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전시는 그 후속 전시로 공항공사 측과도 협업하여 시각 예술 분야 작가 7명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 <남극/북극 출발 → 인천공항 도착>은 '남극과 북극에서 출발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컨셉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경험한 작가들의 시선이 담긴 각각의 이야기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 특정한 국적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 24시간 운영되어 특정한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 영구히 체류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항과 극지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닮은 두 공간, '극지'에 잠시 머물렀던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공항'이라는 장소에 놓임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해 서로 다른 두 공간이 연결되는 색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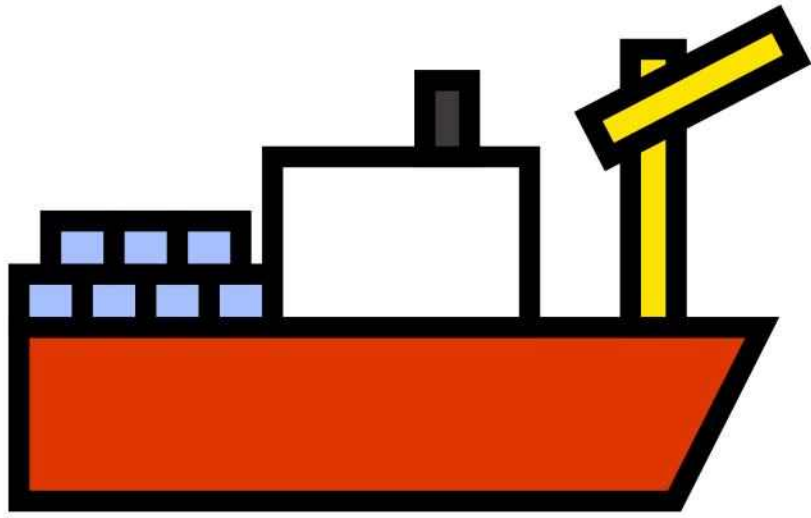
- 이번 전시는 전시 기간 내 상시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다만, 전시장소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탑승구역에 있기 때문에 해당 터미널을 통해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관람이 가능하다.
- 극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매년 공모로 예술가를 선발하며, 선발된 예술가는 남극 세종과학기지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 올해는 시각예술 분야 유비호 작가가 오는 8월 아라온호의 북극항해에 동행할 예정이다.
-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한 여름 눈 앞에 펼쳐지는 남극과 북극의 풍경은 우리의 여름과 많이 달라 새로운 감회를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 동안 일부 과학자들만 느낄 수 있었던 극지의 매력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전시 포스터

붙임2. 전시 참여 작가 및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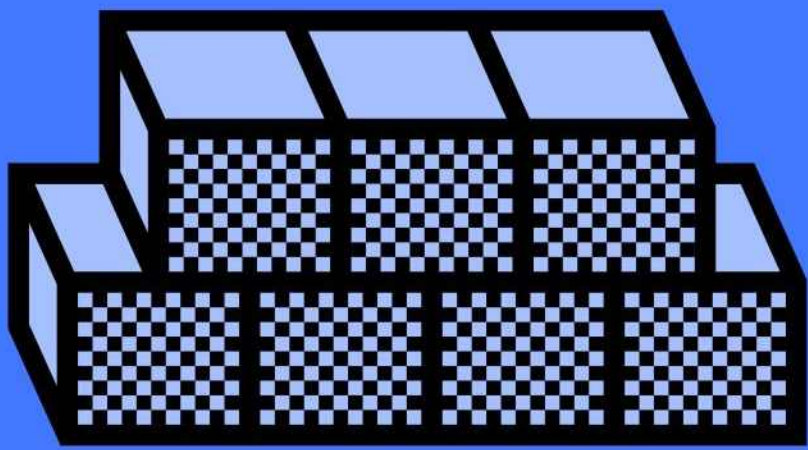
붙임2. 전시장 사진 및 위치

Direct from Antarctica and the Arctic to Incheon Airport



남극 / 북극 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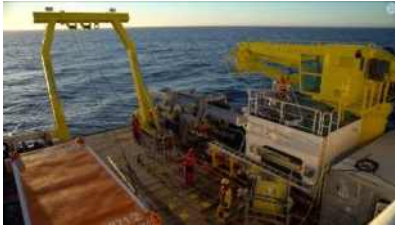
→ 인천공항 도착



23.7.26 —————→ 11.3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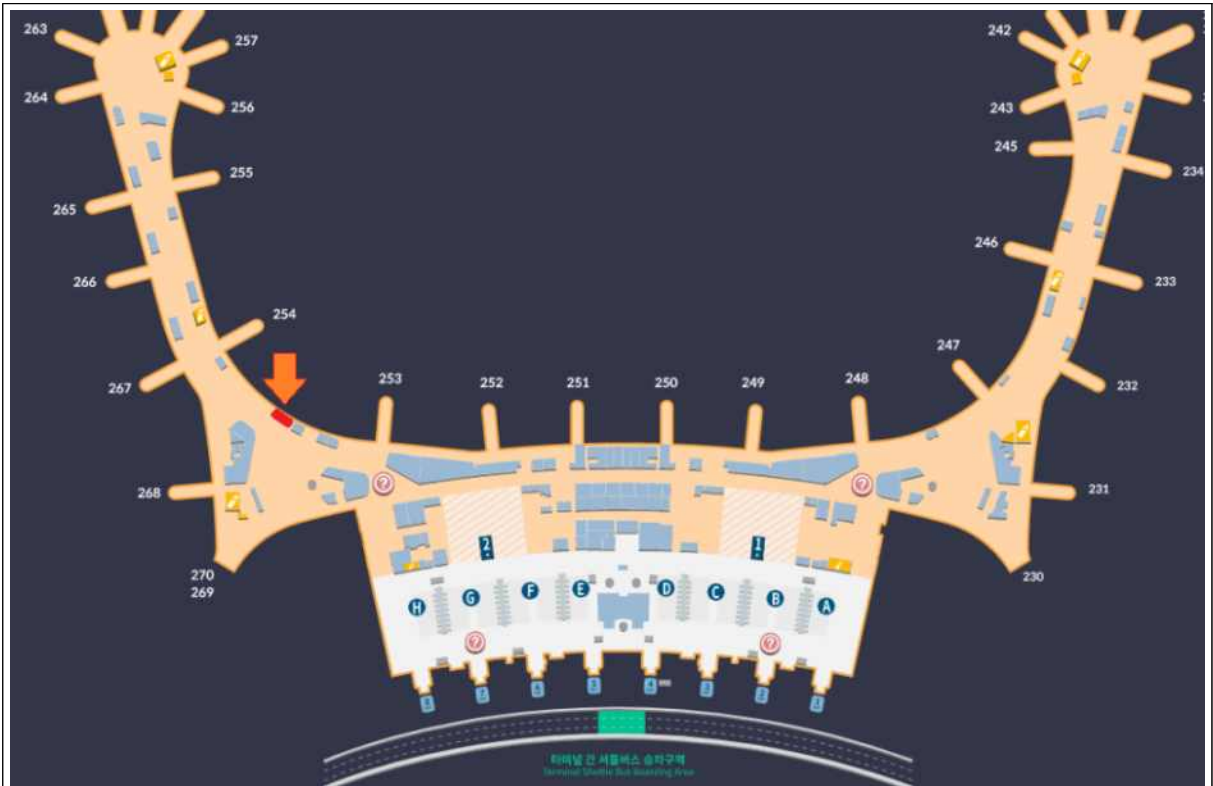
주최 KOPRI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Incheon Airport 후원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ESTLA

작품 이미지	작가명/작품형식/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김승영 - 작품형식: 설치(소금, 모니터, 깃발 등) - 작품명: <깃발>(2012~2018) - 작품소개: 김승영은 2011년 노마딕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1980년 후반부터 물, 이끼, 숯, 돌, 낙엽, 냄새 등을 비롯한 자연재료와 함께 빛과 음향, 사진, 기계장치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진공 상태의 푸른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으로 남극의 백야를 표현한다. 하늘과 구름, 눈 덮힌 산과 바다가 서로 닮아 있는 정지된 듯한 풍경 속에 멀리 깃발만 흔들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조광희 - 작품형식: 영상 - 작품명: <아름다운 소멸> 2012 - 작품소개: 조광희는 2011년 노마딕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아름다운 소멸>은 여름을 맞아 기온상승으로 빙산이 유빙이 되어 사람크기만한 얼음들이 집단으로 녹고 있는 풍경을 담아낸 작품이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남극의 얼음이 서서히 녹는 모습과 녹는 소리로 12년 후 현재의 남극을 상상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김세진 - 작품형식: 영상 - 작품명: <2048>, 2019 - 작품소개: 김세진은 201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2048은 남극에 관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토 "G"에 관한 픽션의 이야기이다. 2048년은 남극조약이 만료되는 해로 작가는 실제 남극에서 채집된 현실적인 영상들과, 접근불가능한 남극의 풍광을 3D 그래픽 영상으로 재현하여 우리의 상상 속 남극이 가진 허구성과 실재성 사이의 간극을 묘사하고자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엄지혜 - 작품형식: 영상 - 작품명: <검은 태양>, 2019 - 작품소개: <검은 태양>은 관계와 균형과 균열에 관해 말한다. 귀여운 꼬마유령 캐스퍼와 물개가 남극의 실사무빙 이미지 위에서 재미있게 노는 영상이 겹쳐진다. 2018년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을 주요 푸티지로 사용하면서, 오로지 과학적 활동만 할 수 있는 남극이 사실상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인 공간임을 드러낸다.

작품 이미지	작가명/작품형식/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손광주 - 작품형식: 영상 - 작품명: <파이돈>, 2021 - 작품소개: 손광주는 2019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3채널 비디오 설치로 풀어낸 아라온호 항해기이자 부분적으로 낭독극의 형식을 빌린 <파이돈>은 기후 변화와 자원 개발의 각축장으로 사라짐의 위기에 처한 북극해의 현재를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에 빗대어 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이정화 - 작품형식: 영상 - 작품명: <Old Land>, 2022 - 작품소개: 이정화는 2021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작가는 어떤 쇠빙선도 접근할 수 없는 북극의 정점 어딘가에 단 한 번도 부서지지도 않고, 녹지 않은 해빙을 상상한다. 녹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파란 땅인 올드랜드에 12세기에 등장하여 신항로개척 시대를 열었던 가짜편지 이야기를 푸티지로 가져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홍기원 - 작품형식: 영상 - 작품명: <마음에 담아라>, 2022 - 작품소개: 홍기원은 2022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작가는 과학자의 끊임없는 도전,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의미하는 영문제목Wolf Trap으로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신의 방향을 표현한다. 2022년 아라온호 승선 당시 촬영한 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올림, 그 교차점을 바라본다.



전시장 사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전시 예정공간 위치 (254번 게이트 근처)